

2007 진영이의 꿈이야기

기억속으로 걷다

2007 **12/15** (토) 2:00 pm, 4:00 pm

해운대 바닷가 바다경찰서 앞 (바지선상공연)

공연문의 : **016.593.6658** / **051.510.1740.**

본 공연은 2007년도 부산광역시 문예진흥기금을 일부 지원받아 공연됩니다.

a walk to rememb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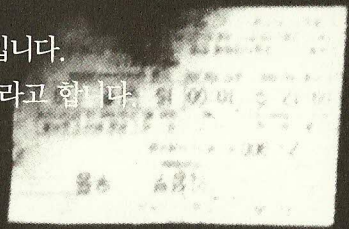
기억속으로 걷다

열면서

바다를 가까이 두고 산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기억 속을 걷기에는 바다만큼 편안한 산책로가 가히 없지요. 그 깊고 넓은 모든 것을 아우러 줄 것 같은 성스러움의 바다입니다. 2002년 10월 처음 바다 위 선상공연으로 바다에 토해냈던 출판의 가슴 벅찬 기억이... 또한 제 몸에 쌓여있는 기억을 온몸으로 토해내어 다스리는 지금 그곳에 저를 다시 서게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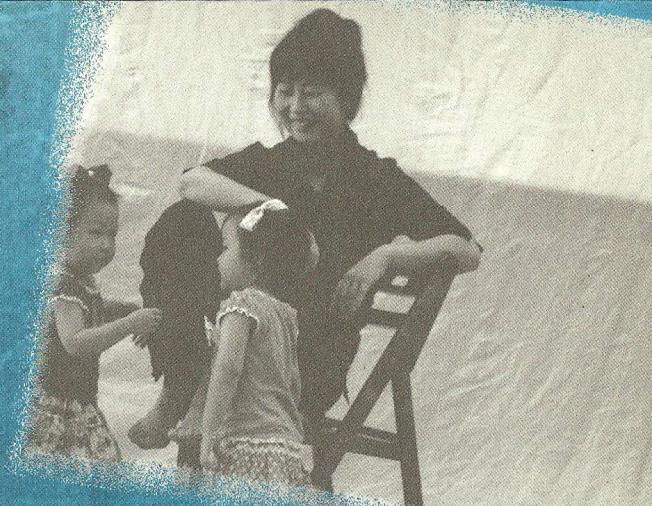
방어의 기능을 수행하듯 망각하는 것과의 끊임없는 싸움은 심리적 갈등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지금의 나를 서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억은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함께 발전하면서 과거를 그 사람의 필요, 관심, 가치에 따라서 고착시키는 개인의 정신적 활동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살아있는 기억은 구체적으로 살아있는 나의 표현이며, 기억이 증언하는 개인적 실존과 분리되지 않아야 함을 되새겨봅니다.

누구나 한번쯤 크고 작게 경험하는 트라우마의 영향으로 현재를 가두는 틀을 깰 수 있기를 깊은 출렁임 속에서 함께 바라 봅니다. 어떤 식으로도 다 표현 못할 목메임으로 이번 공연에 함께 땀 흘려 주신 출판들,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는 박은화 교수님, 더없이 힘을 실어준 사랑하는 당신과 하나 유나,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머리 숙여 전합니다.



기억은 기억의 힘을 잃었다 나는
 간절히 부러워나 할수있다
 왜 과거의 기억을 미안하게?
 현재의 장미 이 기억하여 과거...

제2차 필자가 기억을 선별한다
 내가 지은느낌을 슬픔을 사물을 평아라
 평안하는 지식에서 생애의 슬픔이다
 세계 - 자아의 모방이... 각각 기억을 선별한다



Dancers 박종수, 조희정, 안선희, 박근영, 권아름, 오새름, 김미리, 서한나

Staff 사진 이선화, 박상호 음악 김재욱 영상기록 데자뷰영상 디자인 페퍼민티 www.papermint.net

Choreographer **진영아** Jin Young Ah

- 95.00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무용학과 및 동대학원 졸업
- 95~02 현대무용단 <자유> 정기공연, 지역순회공연 안무 및 출연
- 97.00 제19회 서울국제무용제/제22회 서울무용제 -소극장 선정공연- 안무
- 01 Random Art Project 작은방 창단 - 그곳에는 나비가... 인터넷 라이브 공연 안무 (바다TV 협찬)
- 02 Random Art Project 작은방 바지선상공연 안무 -아이가 아이였을때 인형을 손에 들고 다녔다.
- 03 Random Art Project 작은방 안무 - 꿈꾸는 사람 (금정문화회관 대극장) 제15회 부산무용제안무 - 경계선에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06. Random Art Project 작은방 안무 - VOICE (금정문화회관 대극장)
- 現. 부산대학교 무용학과 외래교수
Random Art Project 작은방 주인

a walk to remember